



[분청사기]란 무엇일까요?

분청사기는 청자의 흙으로 만든 도자기에
하얀 흙물로 분장시켜 구워낸 도자기입니다.
“분장회청사기”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년 전
고려 청자에서 조선 백자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학교 _____

학년 _____

이름 _____

분청사기를 장식하는 다양한 방법

옛날 도자기를 만들던 장인들은 상감/인화/박지/철화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분청사기를 만들었어요. 아래 사진에 알맞은 기법을 찾아 나머지를 연결해 보세요.



붉은 색이 나는 철화 안료로
그림을 그려 장식했어요.
철화 기법이라고 해요.



하얀 흙을 바른 그릇에
무늬를 새긴 다음
배경이 되는 부분을 긁어냈어요.
박지 기법이라고 해요.



도자기에 무늬를 칼로 새긴 다음
흰색이나 검은색과 같은
다른 색의 흙을 채워 넣었어요.
상감 기법이라고 해요.



도자기에 하얗게 흙물을 바르고
조각칼로 무늬를 새기는
방법이에요.
조화 기법이라고 해요.

힌트!!

1실에서 찾아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사용되었을까요?

분청사기는 동그라미, 꽃 등 다양한 문양으로 도자기를 가득 채워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경승부, 장흥고 등과 같이 도자기를 사용한 관청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 바치는 토산품,
술과 안주(2품 이상에게 줌) 등을
담당하던 관청 이름은 무엇일까요?

왼쪽의 도자기와 같이
문양을 도장으로 찍고 흰색의 흙을
채우는 도자기 장식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법

힌트! 2실에서 찾아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몸통을 평평하게 두들겨 만든 편병이에요. 나에게는 특별한 문양이 있어요!
이 문양은 옛날부터 “풍요”와 “다산多産”을 상징하며 도자기에 자주 그려졌는데,
전라북도 부안군 우동리 가마터에서도
풀잎이나 연밥을 입에 물고 있는 이 문양이
몸통에 새겨진 편병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이 문양은 무엇일까요?

 문양

힌트! 3실에서 찾아보세요~!!



모양도 쓰임새도 다양한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대접이나 병과 같은 음식을 담는 용도 이외에도 다양한 쓰임새로
만들어졌어요. 아래 사진의 도자기 이름을 찾아서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무덤 속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생일,
죽은 날짜 등이 적혀 있어요.



분	청	사	기	상	감	선	덕	10	년	명		
---	---	---	---	---	---	---	---	----	---	---	--	--

힌트! 1실에서 찾아보세요~!!



나는 아기와 엄마를 연결하던 탯줄을
담아두는 항아리에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만들었어요.

분	청	사	기	인	화	문
	경	주	장	흥	고	명
				항	아	리

힌트! 2실에서 찾아보세요~!!